

현대차 비정 지지와 연대를

어제(11월 15일) 새벽부터 울산 현대차 비정규
직 노동자들이 투쟁에 돌입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지난 7월 22일 대법원 판결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이며, 2년이 넘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결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같은 작업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더 낮은 임금과 부당한 차별을 받아 온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보수적인 법원조차 인정한 것이다.

이 판결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매우 반가운

일이었다. 그동안 받아 온 부당한 차별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며 정규직화 요구의 정당성을 확인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 이후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갖게 됐고 노동조합으로 가입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순식간에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조합원은 4배나 늘어났고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져 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대

화조차 거부하는 현대차 사측에 맞서 투쟁을 건설해 왔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11월 11일 ~12일 찬반투표를 진행해 90퍼센트가 훌쩍 넘는 압도적 찬성률로 파업까지 결의했다.

11월 12일에 고등법원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요구가 옳다는 판결을 하면서 투쟁 분위기는 더 고조됐다.

이런 상황에서 바로 어제부터 현대차 울산공장 시

규직 노동자 전설하자

트1부에서 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시트1부 비정규
직 노동자들은 변경된 파견업체와 새롭게 근로계약
을 체결하라는 사측의 압박을 거부하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우리는 파견업체가 아닌 현대차와 직접 정규직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자 현대차 사측은 계약을 거부하는 노동자들을 전부 해고해 버렸다. 그리고 이에 맞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어제 새벽부터 공장 점거를 시도한 것이다.

현대차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항에 폭력으로 답했다. 농성에 돌입한 시트1부 노동자들을 관리자와 용역강패를 동원해 짓밟고 폭행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저들은 소화기와 물대포를
쏘고 최루액을 퍼부었고 쇠팅이로 노동자를 가격
하기까지 했다.

경찰이 사측과 손잡고 폭력을 자행한 이 과정에
서 노동자들이 크게 다쳐 병원에 실려 갔고, 수십
명이 연행됐다.

폭력 만행

저들은 시트1부 노동자들을 확실하게 짓밟아 현

대차 비정규직 투쟁의 예봉을 꺾으려 한 것이다. 정부, 경찰, 보수 언론도 이런 사측의 공격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그러나 이러한 저들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폭력 만행 소식을 들은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활동가들이 달려 와 항의 집회를 열었고. 나아가 울산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전면 파업을 선언했다.

들의 투쟁은

분노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호한 파업으로
곧바로 울산 현대차 공장의 일부가 멈춰 섰다. 비
정규직 노동자가 일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만들 수

없고 공장이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지금, 울산 현대차 공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위력적인 파업이 계속되고 있고 정규직 노동자·활동가들의 아름다운 연대도 이뤄지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이다. 왜냐하면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차별이 현대차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만연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체 노동자의 무려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온갖

차별 속에 고통받아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 모두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기대를 걸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의 성패는 비
정규직 노동자들의 단호한 투쟁과 정규직 노동자
의 단결 투쟁, 그리고 전국적 연대의 확산에 달려
있다.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측의 이간질을 거부
하고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해야 한다.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노조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돼 온 비정규직 차별에 맞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나서야 한다.

현대차 비정규직의 투쟁은 실업과 저임금·저질 일자리 위협에 직면한 청년·학생들을 위한 투쟁이자,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는 전체 노동자들을 위한 투쟁이다.

그러므로 이명박 정부에 맞서, 그리고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 투쟁하는 모든 이들은 지금부

정당하다

터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전국적인 지지와 연대를 건설해야 한다.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인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자.

11월 16일 다함께

이렇게 연대 합시다!

- 자신이 속한 단체 · 동아리 · 학생회 등에 제
안해 파업 지지 성명을 발표합시다.
-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지지글을 올리고, 지지

배너(현수막)나 대자보 등을 만들어 보냅니다.

– 노동조합 홈페이지 :

<http://hjbtw.jinbo.net/>

– 주소 : 울산 북구 양정동 700번지 현대자동차 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 E-mail : hjbtw@jinbo.net

- 인터넷 카페,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Daum <아고라> 및 각종 사이트에 지지와 연대 글을 올립니다.

- 청와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탄압
항의 글을 올립시다.
- 현대차 사측에 항의 전화를 합시다.
 - 현대차 고객센터 080-600-6000
 - 현대차 울산공장 052 - 280 -2114
- 투쟁 지지금을 모아서 보냅시다
620-189824-437 외환은행 예금주 이상수